

다큐멘터리

# 《양정우와 그의 철혈소년》, 반석에서 가동식



3월 3일, 길림시당위 선전부와 길림시용미디어센터, 반석시당위에서 촬영제작을 맡고 길림성당위 당사연구실이 연합으로 출품한 다큐멘터리 《양정우와 그의 철혈소년》이 반석시에서 가동식을 거행했다.

세월의 긴 강을 건너 역사의 메아리는 아직도 귀가에 들려온다.

올해는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쇼전쟁 승리 80주년이 되는 해이자 위대한 공산주의전사이며 중국공산당의 우수한 당원이며 저명한 항일 민족영웅인 양정우 장군 탄생 120주년 및 장렬히 순국한 지 85주년이 되

는 해이다.

명심은 가장 좋은 경의이고 전승은 가장 좋은 추모이다.

3일 오전 10시 30분, 반석시당위 당학교 1층 보고실에서 다큐멘터리 《양정우와 그의 철혈소년》 출품 가동식이 개최되었다.

주최측은 상급의 지시에 따라 반석시에서 소년영(營)을 조직한 양정우 장군의 봉화이야기를 정식으로 깊이 있게 발굴하는 본 다큐멘터를 통해 관중들에게 '철혈소년'이 양정우 장군의 인술 아래 쓴 '적구의 불패소년' 영웅찬가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줌

으로써 홍색유전자를 전승하고 강대한 정신적 력량을 이어받도록 사람들을 격려하며 성역 부중심 도시로서의 길림시의 건설에 강대한 정신력 력량을 부여하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반석은 영웅도시로서 홍색력사가 중후하다. 특히 14년간의 간고한 항일전쟁에서 반석은 두드러진 역사적 지위를 갖고 있다. 당이 령도하는 동북의 첫 항일무장을 조직하고 당이 령도하는 첫 항일유격근거지를 건립하였으며 당의 항일민족통일전선을 가장 먼저 탐색하고 실

전한 곳으로서 양정우 장군이 령도한 동북항일련군 제1군의 발자취와 홍색유적이 반석 전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있다.

“남쪽에 서금(瑞金)이 있다면 북쪽에는 반석이 있다.”는 말이 있다.

다큐멘터리 학술고문의 한사람인 장부유 길림성당위 선전부 전임 부부장과 다큐멘터리 예술총고문 조명인은 가동식 현장에서 출품측에 그들이 창작한 서화 작품을 선물하며 “다큐멘터리 가동식은 반석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탄탄한 역사적 사실과 다양한 표현 형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봉화 속 파란만장한 세월을 알고 양정우 장군의 강철같은 의지와 뜨거운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야기의 가장 생동감 있는 소재를 잘 다루고 영웅이야기를 잘 들려주는 것은 도의상 거절할 수 없는 우리 언론인들의 책임이다.”

《양정우와 그의 철혈소년》은 길림시용미디어센터에서 다큐멘터리 《항일민족영웅 양정우》에 이어 또 한번 양정우 장군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는 력작이다.

다큐멘터리 《양정우와 그의 철혈소년》 프로젝트는 당사 연구 전문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제작팀은 본 다큐멘터를 2회 총 50분 분량으로 촬영, 동북항일련군 정신이 그 특수한 시대에 발산한 강대한 감화력과 생명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길림성, 길림시와 반석시 관련 부문 책임자, 당사 연구 전문가와 중학교, 대학교 사생 200여명이 다큐멘터리 《양정우와 그의 철혈소년》 가동식에 참가했다.

가동식후 제작진은 반석 정우광장에서 긴박한 촬영에 들어갔다.

## 길림시, 봄같이 준비 질서있게 추진

일전, 길림시농업농촌국에 따르면 길림시 봄같이 준비작업이 순조로운 추진중에 있다.

길림시는 랑곡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앞당겨 봄같이 준비 제반 사업의 실시를 틀어쥐고 올해 농업생산의 '첫 전역'을 잘 치러 고품질, 고표준으로 여러 단계 생산임무의 질서있는 완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길림시는 봄같이 자금 조달 경로를 전력으로 뚫었다. 현재 전 시적으로 수요되는 봄같이 준비 자금은 33억 3,000만원인데 2월 17일까지 이미 22억 4,000만원(그중 농민들이 자체로 17억 8,000만원 마련, 은행대부금 4억 6,000만원)을 조달, 이는 총수요의 67.3%를 차지한다. 나머지 자금은 3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일찍 계획하고 일찍 포지하는 것을 통해 길림시는 이미 종자, 화학비료, 농약 등 봄같이 생산물자의 조달 운송과 비축 사업을 질서있게



전개했다.

소개에 따르면 전 시 봄같이 준비에 필요한 종자는 2만 5,000톤, 화학비료는 49만 4,000톤, 농약은 5,316톤, 농막은 5,838톤이다.

지금까지 전체 배달량의 43.4%를 차지하는 종자 1만 1,000톤, 전체 배달량의 19.2%를 차지하는 화학비료 9만 5,000톤, 전체 배달량의 7.1%를 차지하는 농약 375톤, 전체 배달량의 22.8%를 차지하는 농막 1,334톤이 농민들 손에 배달되었다. 농약을 제외한 기타 물자는 4월 초순까지 모두 농가에 배달될 예정이다.

## 길림시 2025년도 과학기술사업회의 소집

최근, 길림시는 2025년도 전 시 과학기술사업회의를 소집하고 2025년 국가와 성 과학기술사업회의 정신을 전달하고 올해 과학기술혁신 임무를 포지함으로써 과학기술혁신으로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을 인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길림시과학기술국은 길림시 과학기술 업무보고를 했다.

새해에 길림시 과학기술혁신사업은 '하나의 중심, 4개 기지' 건설을 긴밀히 둘러싸고 과학기술혁신 '1233' 사업기제를 적극 실시하고 교육과학기술인재의 산업 일체화, 산

업사슬의 품질 제고, 혁신 능력 제고, 과학기술형 기업의 강대 등 8대 전문행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회의에서 반석시와 길림경제개발구 과학기술혁신사업의 전형 경험을 교류하고 길림정업생물제품주식유한회사의 기업 혁신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길림시 직속부문, 여러 현(시, 구)과 개발구의 관련 책임자, 과학기술계통 간부, 대학교, 기업과 과학연구기구 대표 등 150여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 전국 대학 교사 스키도전경기 강성에서

일전, 2024-2025 전국 학교 병설 운동 계열 경기 제3회 전국 대학 교사 스키도전경기가 송화호스키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경기는 중국학생체육연합회에서 주최하고 길림성교육청에서 주관했다. 경기는 알파인스키 대회전

과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2개 종목을 설치했는데 방설운동 계열 경기에서 유일하게 대학 교사들을 대상으로 했다.

전국 62개 대학에서 온 300여명 교사들이 이번 경기에 참가했다.

## 나의 책임은 동북 양걸의 역사를 잘 발굴하고 보호하는 것

—길림 전통양걸기에 전승인 고광길의 이야기

길림시무형문화유산재현관에서 고광길은 오늘도 동북의 전통 양걸(老秧歌)을 연구하고 있다.

수건을 손에 잡은 그는 노래가락에 맞춰 몸을 흔든다. 그의 동작은 느리지만 박력이 있고 모든 동작이 박자에 잘 맞춘다.

“양걸춤은 몸을 비틀며 추고 또한 노래하며 추는 것이다.” 동북 전통 양걸의 문화의 뿌리를 찾고자 고광길은 동북지역의 여러 현과 향진을 찾아다니며 현지 조사를 했다. 흑토지의 이 문에 유전자를 잘 발굴하고 보호하는 것은 그의 바람이다.

49세의 고광길은 동북양걸창대판(秧歌唱大板) 길림시급 무형문화유산 전승인이다. 그는 대판이라는 이 도구와 관련된 노래가락(唱腔)과 공연 형식은 동북 양걸춤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대판은 리듬을 채내는 기능 외에도 설구(说口)의 반주로 되기도 해 음악과 가사가 없어도 단독으로 무대에 등장할 수 있다.

동북지역에 대고(大鼓), 새납(唢呐) 등 악기가 부족했던 시절에 대판 반주는 양걸춤 대오에서 리듬을 장악하는 '령혼'으로 되어 세세세대 전승되었다.

고광길은 지금의 동북 양걸을 '신파 양걸'(新派秧歌)에 비유했다. 신파



송화강변에서 전통 양걸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 / 차영국기자

양걸이 무용, 건신체조, 류형음악 등 요소를 융합시키면서 대판은 양걸 무대에서 물러났다.

“내가 하는 일은 전통 기예를 남기는 것이다.”

고광길은 무형문화유산재현관의 일상 관리사업을 책임지고 있다. 많은 동북 양걸 애호가와 관광객들이 그에

게서 전통 양걸의 기법과 지식을 배웠다. 체험관에 몇명의 양걸애호가들이 찾아오자 그는 무반주로 대판을 치며 노래를 불렀다. 구성지고 나즈막한 노래가락은 무시로 관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일부 관중들은 근처 양걸팀의 주력 성원으로서 고광길과 아주 익숙하다.

길림시 도시구역에서는 수십개의 양걸팀이 활약하고 있는데 고광길은 늘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흥이 나면 그는 고수(鼓手)의 자리를 '쟁탈'하고는 북 리듬으로 대오를 지휘하기도 한다.

“고선생은 양걸을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하는 장욱은 대형 양걸팀의 책임자로서 늘 고광길을 초청하여 팀의 활동에 참가하게 한다.

고광길은 료녕, 흑룡강 등지의 시골에 가서 조사를 한 후 장욱과 함께 길림지역의 양걸과의 차이에 대해 담론하곤 했다.

두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은 동북 양걸이 지금도 여전히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Z세대', '중년들이 끊임없이 양걸 대오에 합류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이들은 생방송, 짧은 동영상 등 형식을 통해 이 예술을 광범하게 전파하며 끊임없이 열기를 올리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전통 문예의 발전 부흥과 더불어 고광길은 빈번히 초청을 받아 업계 전문가와 학자들과 얼굴을 맞대고 교류할 기회가 생겼다. “내 책임은 동북 양걸의 역사를 잘 발굴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고광길은 말한다.

## 길림시, 봄철 도시 환경위생 정돈 진행

길림시도시관리국은 '깨끗한 환경, 새 얼굴'을 목표로 60일간의 봄철 환경위생 전문 정돈 행동을 전개하여 명절후 도시환경의 두드러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루계로 쓰레기 8,000톤, 폭죽 잔류물 23.8톤, 적방적설 9,800립방메터를 정리했다.

설명절후부터 여러 도시구역 환경위생부문은 '기계+인공' 연합작업 모식을 취하여 송강로, 해방대로, 북경로 등 중점 구간에 대해 순환

청결을 실시하였다. '도시미용', '대세척행동'에 일평균 연인수로 1,200명을 투입하여 각종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정밀화 세척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루계로 연인원 4만 6,000명, 설비 1,682대를 출동시켜 가드레일 4만 4,000미터, 쓰레기통 1만 2,000여개를 청소했으며 공중화장실 862개를 정비했다.

동시에 12개의 응급분대를 구성하여 사각지대에 쌓여있는 얼음과 눈을 집중적으로 정리했다.

## 길림시조선족배구협회 3.8절맞이 배구경기



3월 2일, 길림시조선족배구협회 3.8절맞이 배구경기가 길림시조선족중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길림시조선족배구협회 황정환 비서장의 소개에 따르면 이번 경기에

본 협회의 43명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남녀 혼합 6개 팀으로 나뉘어 하루의 일정으로 치열한 각축을 벌였다.



최근, 길림시민정국에 따르면 음력 설 연휴가 지난 후 길림시의 여러 혼인등기소들은 올해 첫 혼인신고 고봉을 맞이했다.

적지 않은 예비 신랑신부들이 설명절후 혼인신고를 하는 이유는 새로운 한해에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길림시민정국 사회사무처 관계자는 “설 연휴가 지난 후 혼인등기소를 찾는 이들이 1월보다 30%가량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2월 14일 연인절 당일에만 329쌍이 혼인신고를 했다. 고봉기의 혼

인신고 처리가 효과적이고 질서있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길림시의 혼인등기소들에서는 예약 서비스, 사전 서비스, 지연 서비스를 실행하고 담당 직원과 접수 창구를 늘였다.